

디스플레이 산업

권민규 mk.kwon@sks.co.kr / 3773-8578

SK증권 리서치센터

미국 국제무역위, BOE 수입금지 판결 관련 코멘트 (Update)

- BOE패널이 탑재된 아이폰 완제품 수입금지 조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움
- 다만 BOE의 미국 내 OLED 패널 점유율 확대 기조를 둔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
- 여전히 국내 디스플레이 업계에는 긍정적인 이슈로 작용

아이폰 완제품에 탑재된 BOE의 패널은 수입금지? or 수입 가능?

▶ 현재 이슈

- USITC의 이번 금지 조치가 'OLED 디스플레이 패널 수입에만' 적용되는지, 아니면 '스마트폰 완제품(아이폰)에도' 적용되는 것인지에 대한 논쟁 발생
- 아이폰 완제품은 중국 및 인도에서 조립되기 때문에 미국은 직접적으로 패널 및 부품을 수입하지 않음. 따라서 BOE 패널이 탑재된 아이폰 완제품까지 수입을 차단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 대두

▶ BOE패널 탑재 아이폰 완제품은 어떻게 되는가? -> 완제품 수입금지 조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움

- 수입금지조치, 미국 내 마케팅, 판매, 광고, 재고판매 금지는 시행되나, 완제품 수입금지는 해당되지 않음
- 이번 특허 소송의 조사개시통보(Notice of Investigation(NOI))의 범위는 BOE의 'OLED 디스플레이 패널, OLED 디스플레이 모듈, 그리고 이들의 구성 부품'으로 규정하고 있으며, 완제품이 포함되지 않음.
- USITC는 통상적으로 NOI에 기재된 범위를 넘어서는 제품을 수입금지명령에 넣지 않음
- 삼성디스플레이가 USITC에 신청한 조치는 제한된 수입 권고(Limited Exclusion Order(LEO))로, 일반적인 수입 권고(General Exclusion Order(GEO))보다 약한 조치임
- LEO의 경우, 위법자가 직접 제조/수입하거나 그 계열사가 관여한 물품만을 수입 제한 조치함. 따라서 NOI에 명시된 대로 BOE가 직접 수출하는 OLED 패널 및 모듈, 부품만 해당됨. 애플이 조립한 아이폰 완제품은 LEO의 직접 대상이 아니므로 수입 제한 조치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며, 효력도 발생하지 않음
- GEO의 경우, 위반자 여부와 무관하게 침해 품목 전반에 대해 미국 수입을 금지하는 강력한 조치로, BOE가 미국으로 패널, 모듈, 부품 뿐 아니라 BOE 패널이 탑재된 완제품까지 모두 수입 제한 조치가 가능.
- 결론적으로 삼성디스플레이가 USITC에 신청한 LEO는 '위법자 대상'이기 때문에 BOE가 생산한 패널까지는 범위가 인정되나, 애플이 생산한 완제품까지는 수입금지 조치가 어려움
- 애플의 입장은 7월 11일 예비결과 발표 당시 "애플은 이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며, 이 명령은 어떤 애플 제품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"라고 언급하며 해당 의견에 힘을 실어주는 의견을 언론을 통해 공개함

▶그럼 아무 이득이 없는가? -> 미국 내 리퍼비시 패널 및 타 OLED 패널에는 영향

- 이번 판결문에는 중지 명령(Cease and Desist Order, CDO)도 포함됨. 이는 미국 내에 이미 존재하는 재고나 제품 유통, 판매를 금지하는 조치. 따라서 미국 내에 존재하는 리퍼비시 패널에 대한 유통/판매는 금지될 수 있음
- USITC는 이번 판결에 '사전 인증 조항(Certification Provision)'을 권고함. 해당 권고를 통해 걸보기로는 판별하기 어려운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사를 사전에 인증하여 패널의 유통 및 판매를 차단하려는 권고가 포함됨
- BOE는 미국 내 유통되는 아이폰, 갤럭시용 OLED 패널을 값싸게 공급해옴. 해당 패널들의 대체 수요 발생 가능함
- 또한 OLED 수입/판매/유통 금지 조치는 스마트폰용 OLED 뿐만 아니라 차량 및 IT용 등 모든 형태의 OLED 패널에도 적용되는 조항으로, BOE는 미국 대상 기업으로 영업을 시도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됨

▶영향

- 이번 판결이 애플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, 단기적으로 BOE의 Market Share가 변화할 가능성은 낮음.
- 미국은 연간 아이폰 출하량의 30%를 차지(약 7,000만대). 애플은 미국 내 분쟁을 피하기 위해 미국 외 타 국가에 BOE 패널을 할당할 수 있음. 다만 BOE는 현재도 레거시 물량 위주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, 신규 아이폰 수요가 높은 미국 대비 타 국가향 물량이 많으므로 BOE의 점유율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
- 삼성디스플레이도 주요 고객사인 애플의 사업을 침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, GEO대신 LEO를 신청, 특허 우위를 가져옴으로써 협상력이 상승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
- 향후 삼성디스플레이-BOE간 라이선스 협상, 애플의 물량 할당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

▶결론

- 한국 디스플레이 산업에 긍정적인 이슈인 것은 명확함. 향후 BOE는 미국 기업 대상 영업 활동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, 미국 외 다른 국가에서 진행중인 BOE와의 특허 소송에서 가장 효과적인 레퍼런스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
-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실질적인 물량 상승 효과는 제한적이지만 중장기적으로 BOE가 미국 업체(애플, HP, DELL 등)와 협업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국내 디스플레이 패널 업체들의 교섭력이 증가할 수 있음
- 분쟁 회피 목적이나 협상 등으로 추후 미국 내 판매되는 아이폰 신규 물량 패널은 한국 업체가 계속해서 높은 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

Compliance Notice

- 작성자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-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
- 투자판단 3 단계 (6개월 기준) 15%이상 → 매수 / -15%~15% → 중립 / -15%미만 → 매도